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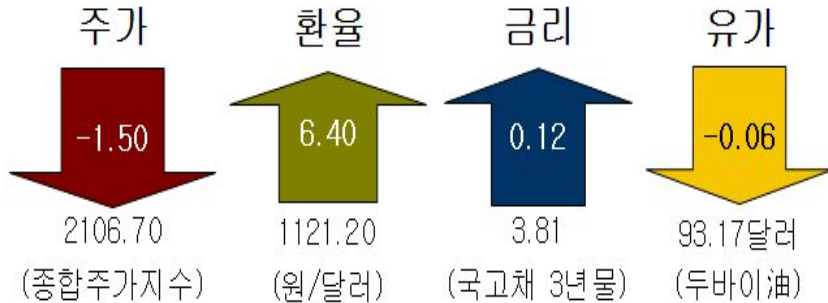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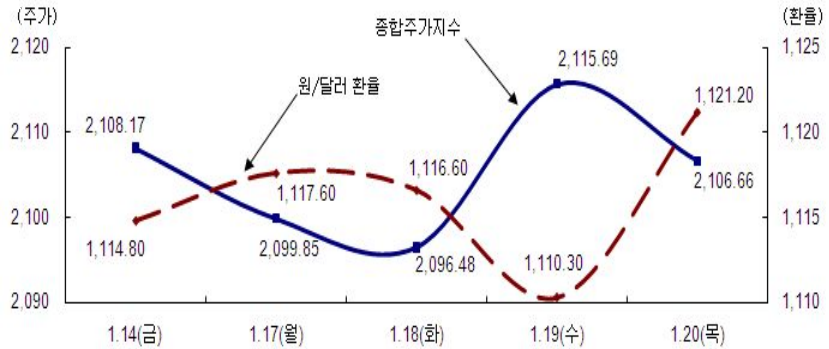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 취업애로계층의 급증과 해소방안 】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4~1.2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취업애로계층의 급증과 해소방안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민 정 연구 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취업애로계층의 급증과 해소방안

(취업애로계층 증가)

작년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애로계층은 급증하여 체감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주 36시간미만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체감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애로계층이 2009년 전년대비 20.2% 급증하여 182만 3,032명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10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192만 1,101명을 기록하는 등 체감 고용 상황은 2년 연속 어려운 형편이다. 18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애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8%에서 2009년 4.5%로 급증하였고 2010년에는 4.7%로 증가하였다.

(취업애로계층의 구조적 특징)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취업애로계층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년층 취업애로계층도 급증했다.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60세 이상 노년층의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전년대비 51.9%의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고 비중 측면에서도 2009년 10.6%에서 2010년 15.3%로 급증했다. 둘째, 성별로 보면, 2010년 경제회복기에 남성 취업애로계층은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하였다.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3%에서 2010년 59%로 감소한 반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37%에서 41%로 증가하였다. 2010년 남성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여성은 전년대비 16.6% 증가하여 경제회복기에 여성의 고용 상황은 오히려 후퇴했다. 셋째, 학력별로 보면, 2010년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문제가 심화되었고, 특히 여성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졸이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7.1%에서 2010년 43.8%로 감소하였으나 초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28.7%에서 30.5%로 증가하였다. 2010년 여성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23.7%로 남성의 3.4%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넷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2010년 임시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의 규모가 급증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 중 2009년 급증하였던 자영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다섯째, 산업별로 보면, 2010년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은 전년대비 취업애로계층이 감소했으나 정부의 희망근로 감축으로 인해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애로계층은 급증세를 나타냈다. 여섯째, 취업 활동별로 보면, 취업유경험 미취업자 중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의 단기 미취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자가 전년대비 3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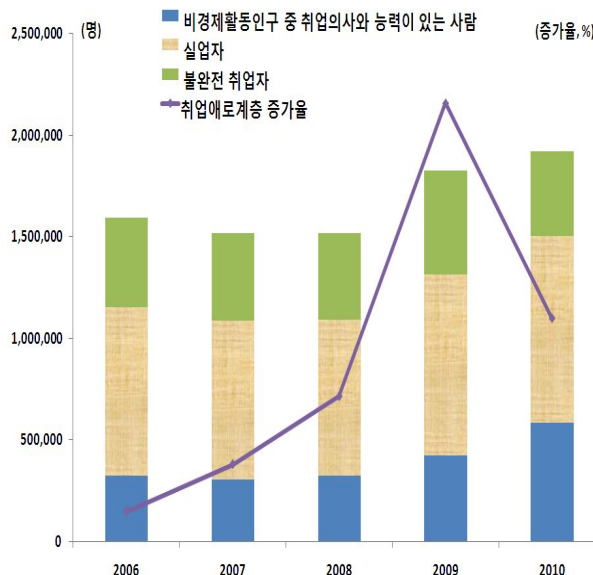
(해소방안)

취업애로계층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종사자 지위별, 산업별, 취업 활동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전문기술 양성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인턴제를 적극 활용하고 노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육시설 확대,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지원센터와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희망근로 사업 축소로 인해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턴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유경험 미취업자를 취업유경험자로 전환하여 안정적 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1. 취업애로계층 증가

- (취업애로계층의 정의) 실업자, 주 36시간미만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체감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임
- (취업애로계층 증가세 지속)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이 악화되어 취업애로계층이 2009년 이후 급증세를 나타내며 2010년에도 전년대비 5.4% 증가
 - 취업애로계층이 2008년 대비 31만 명 급증하여 2009년 182만 명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도 전년대비 9만 8천 명 증가하여 사상최대치인 192만 명 기록
 - 2007년 이후 152만 명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의 악화로 2009년 급등세 기록하고 2010년에도 증가세 지속
 - 2010년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7.9%고, 불완전 취업자가 21.8%를 차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30.3%를 차지함
 - 2010년 정부의 희망근로 감축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불안전 취업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증가
- 15세 이상 인구¹⁾에서 취업애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
 - 2008년 3.8%에서 2009년 4.5%로 급증하였고 2010년에는 4.7%로 증가

< 취업애로계층 규모 및 증가율 >



< 취업애로계층 비중 > (%)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경제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20.4	20.1	21.2	23.3	30.3
실업자 ²⁾	52.0	51.6	50.7	48.7	47.9
불완전 취업자	27.6	28.2	28.1	27.9	21.8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1) 15세 이상 인구수는 2008년 3,959만 8천명, 2009년 4,009만 2천명, 2010년 4,059만 명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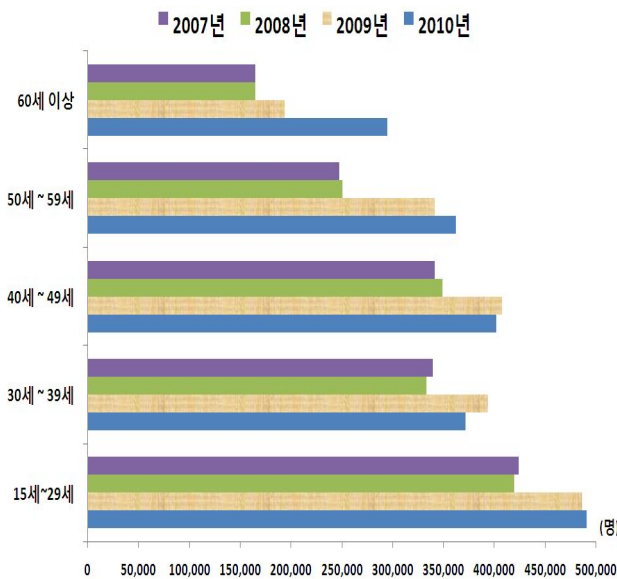
2) 2010년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7%로 2009년 3.6%보다 0.1%p증가

2. 취업애로계층의 구조적 특징

○ (연령별)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갈수록 60세 이상의 노년층 취업애로계층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2010년 경제회복기에서 노년층 취업애로계층 급증

- 취업애로계층 중 가장 큰 비중은 청년층으로 나타남
 - 취업애로계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5~29세의 청년층으로 2010년 비중이 전년대비 1.2%p 감소하여 25.5%를 나타내고 규모는 49만 698명을 기록
- 2010년 60세 이상의 취업애로계층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노년층 취업애로계층 문제 심화
 -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의 급증은 50~59세까지의 연령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2009년 36.3%의 증가율을 기록
 - 2010년 60세 이상 노년층의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전년대비 51.9%의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고 비중측면에서도 2009년 10.6%에서 2010년 15.3%로 급증하며 2010년 규모가 29만 4,662명으로 증가

< 연령별 규모 추이 >



< 연령별 비중 및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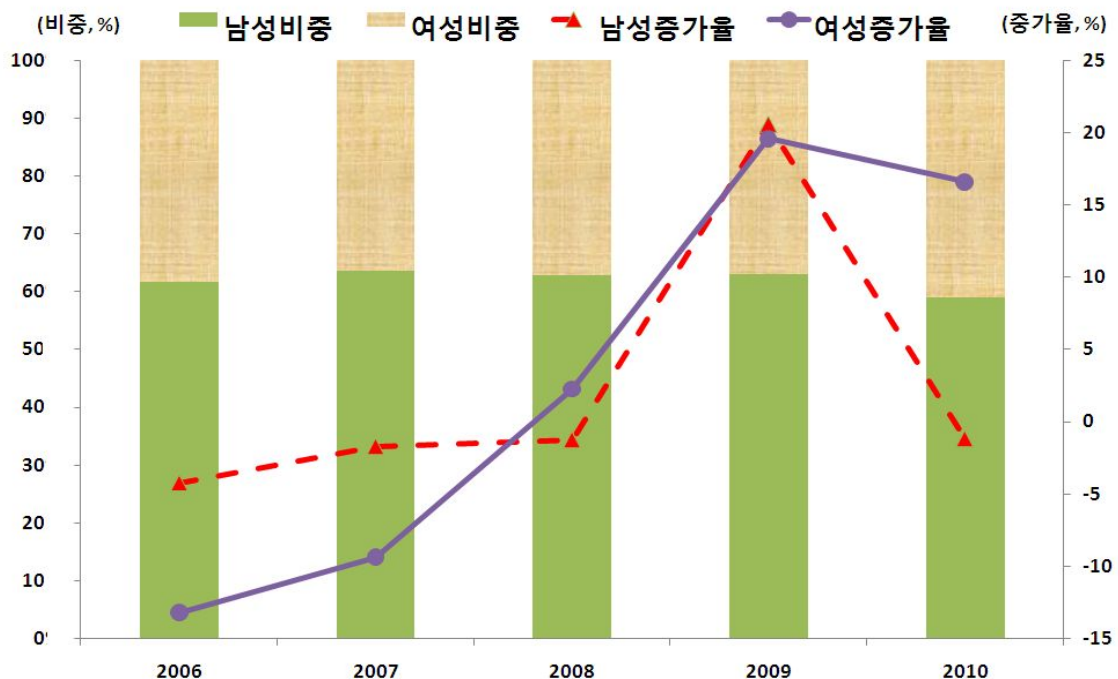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15~29세	29.3 (-6.0)	27.9 (-9.1)	27.7 (-1.0)	26.7 (16.0)	25.5 (0.9)
30~39세	21.2 (-12.8)	22.4 (0.5)	22.0 (-1.9)	21.6 (18.2)	19.4 (-5.6)
40~49세	23.5 (-11.1)	22.5 (-8.7)	23.0 (2.2)	22.4 (16.8)	20.9 (-1.4)
50~59세	15.9 (-1.1)	16.3 (-2.2)	16.5 (1.2)	18.7 (36.3)	18.9 (6.2)
60세 이상	10.1 (-4.8)	10.9 (3.0)	10.9 (0.0)	10.6 (17.7)	15.3 (51.9)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성별) 규모와 비중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2010년 경제회복기에서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남성의 취업애로계층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에 여성은 증가

- 남성이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2010년 남성과 여성의 취업애로계층은 각각 113만 3,869만 명, 78만 7,232 명으로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9%, 41%를 나타냄
- 하지만,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서 여성이 전체 취업애로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3%에서 2010년 59%로 감소한 반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37%에서 41%로 증가
 - 남성의 취업애로계층은 2009년 114만 7,797명에서 2010년 1.2% 감소한 반면에 여성은 2009년 67만 5,236명에서 2010년 16.6% 증가하여 경제회복기에서 여성의 취업애로계층은 심화

< 성별 비중 및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 (학력별) 고졸 취업애로계층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2010년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에 대졸 취업애로계층 규모와 비중은 크게 증가함

- 고졸이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2010년 고졸 취업애로계층은 2009년 대비 1만 8,082명 감소한 반면에 대졸 취업애로계층은 동기간 4만 7,893명 증가
 - 2010년 고졸 학력자의 취업애로계층은 84만 859명을 나타내며 취업애로계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졸은 35만 1,322명을 기록하며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고졸이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7.1%에서 2010년 43.8%로 감소하였으나 초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28.7%에서 30.5%로 증가하여 2010년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문제 심화
- 대졸 취업애로계층은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
 - 2010년 대졸 취업애로계층은 전년대비 15.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고졸 취업애로계층은 전년대비 2.1% 감소함

< 취업애로계층의 학력별 변화 추이 >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초졸이하	211,083 (13.3)	200,931 (13.2)	194,650 (12.8)	213,033 (11.7)	244,668 (12.7)
중졸	218,909 (13.8)	195,638 (12.9)	201,566 (13.3)	227,343 (12.5)	250,583 (13.0)
고졸	740,617 (46.5)	693,973 (45.8)	695,796 (45.9)	858,941 (47.1)	840,859 (43.8)
초대졸	155,333 (9.8)	167,955 (11.1)	155,954 (10.3)	198,018 (10.9)	212,565 (11.1)
대졸	237,005 (14.9)	235,735 (15.5)	248,736 (16.4)	303,429 (16.6)	351,322 (18.3)
대학원졸	28,217 (1.8)	22,503 (1.5)	19,960 (1.3)	22,266 (1.2)	21,104 (1.1)
합계	1,591,168	1,516,737	1,516,665	1,823,032	1,92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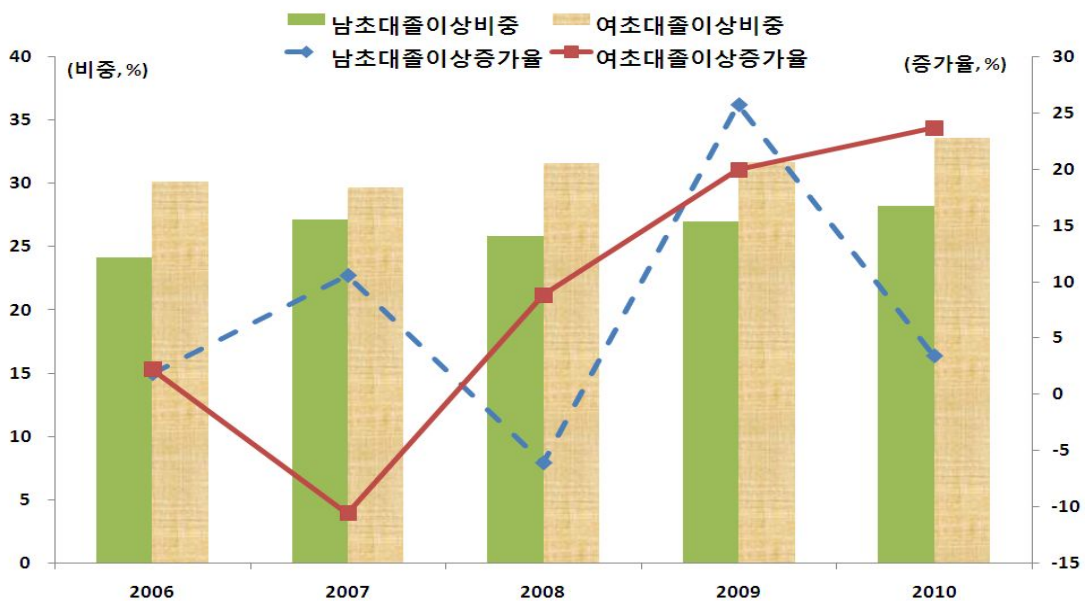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 (고학력 성별)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 취업애로계층 증가율이 매우 높아 고학력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이 전체 여성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음
 - 2010년 남성과 여성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비중차가 2009년 4.7%에서 2010년 5.4%로 증가
 - 전체 여성 취업애로계층 중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31.7%, 2010년 33.6%로, 남성의 경우 2009년 27%에서 2010년 28.2%로 확대
-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이 많지만 2010년 여성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
 - 2010년 여성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전년대비 23.7%의 증가율로 5만 663명 증가하여 26만 4,765명을 기록함
 - 2010년 남성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전년대비 3.4%의 증가율로 1만 617명 증가하여 32만 226명을 나타냄

< 고학력 성별 취업애로계층의 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 (종사자 지위별) 2010년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의 규모가 급증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 중 2009년 급증하였던 자영자는 감소세로 전환

- 2010년 임금근로자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소폭 증가하여 2010년 83.2%를 차지
 - 임금근로자 중 상용 및 일용 근로자의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임시근로자의 규모는 전년대비 18.5% 급증
- 2010년 비임금근로자 취업애로계층 규모와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자의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2009년 급증하여 19만 2,513명을 기록했으나 2010년 전년대비 5.8% 감소하며 18만 1,349명 기록

< 취업애로계층의 종사자 지위별 변화 추이 >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근로자	986,947 (80.4)	969,033 (82.2)	97,7963 (83.0)	1,180,248 (82.7)	1,162,526 (83.2)
상용근로자	149,359 (12.2)	166,088 (14.1)	166,588 (14.1)	230,999 (16.2)	228,763 (16.4)
임시근로자	346,052 (28.2)	328,081 (27.8)	333,098 (28.3)	384,964 (27.0)	456,348 (32.6)
일용근로자	491,536 (40.0)	474,864 (40.3)	478,277 (40.6)	564,285 (39.6)	477,415 (34.2)
비임금근로자	241,038 (19.6)	209,431 (17.8)	200,349 (17.0)	246,378 (17.3)	235,277 (16.8)
고용주	33,852 (2.8)	27,339 (2.3)	26,873 (2.3)	30,771 (2.2)	29,807 (2.1)
자영자	185,973 (15.1)	160,566 (13.6)	155,530 (13.2)	192,513 (13.5)	181,349 (13.0)
무급가족봉사자	21,213 (1.7)	21,526 (1.8)	17,946 (1.5)	23,094 (1.6)	24,121 (1.7)
합계	1,227,985	1,178,464	1,178,312	1,426,626	1,397,803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위 표의 합계 수치는 전체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와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 된 단기 미취업자와 불완전취업자만 포함한 수치임(즉, 실업자와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 된 장기 미취업자와 전직장이 없는 무경험 미취업자는 위의 종사자 지위별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괄호안의 수치는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 (산업별) 2010년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은 전년대비 취업애로계층이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정부의 희망근로 감축으로 인해 공공행정 취업애로계층은 급증세
 -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분야 순으로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2009년 이들 분야의 취업애로계층은 급증하였으나 2010년에는 이들 분야의 취업애로계층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냄
 - 2010년 수출회복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며 취업애로계층이 전년대비 17.1% 감소하였고 건설업도 공공부문 건설경기 호조로 16.8% 감소
 - 2010년 정부의 희망근로 감축으로 인해 공공행정 취업애로계층 급증
 - 2009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로 불안전 취업자가 증가했고 2010년에는 희망근로 사업 축소로 인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급감하여 공공행정 취업애로계층이 급증
 -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애로계층이 2009년 3만 922명에서 10만 3,602명으로 급증하며 전체 산업에서 비중도 7.4%를 차지함

< 취업애로계층의 산업별 변화 추이 >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193,125 (15.7)	179,167 (15.2)	184,710 (15.7)	221,770 (15.5)	183,821 (13.2)
건설업	288,854 (23.5)	271,523 (23.0)	266,915 (22.7)	329,755 (23.1)	274,354 (19.6)
도매 및 소매업	164,665 (13.4)	164,009 (13.9)	163,354 (13.9)	185,416 (13.0)	170,815 (12.2)
운수업	59,672 (4.9)	55,749 (4.7)	53,632 (4.6)	84,776 (5.9)	66,762 (4.8)
숙박 및 음식점업	108,202 (8.8)	103,850 (8.8)	111,383 (9.5)	137,644 (9.7)	115,843 (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452 (2.0)	23,213 (2.0)	22,835 (1.9)	30,922 (2.2)	103,602 (7.4)
교육 서비스업	66,553 (5.4)	55,249 (4.7)	61,718 (5.2)	80,597 (5.6)	95,004 (6.8)
합계	1,227,952	1,178,467	1,178,314	1,426,630	1,397,803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산업 9차 계정을 적용하여 분류하였으며 총 21개의 산업으로 나뉘지만 취업애로계층의 비중이 높은 산업 7개만 선정하여 표로 작성함.

2) 위 표의 합계 수치는 전체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와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 된 단기 미취업자와 불완전취업자만 포함한 수치임(즉, 실업자와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 된 장기 미취업자와 전직장이 없는 무경력 미취업자는 위의 산업별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괄호안의 수치는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 (취업 활동별) 취업유경험 미취업자 중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의 단기 미취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자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10년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자가 전년대비 35%의 증가율 나타내며 급증세
 - 2010년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자가 급증하며 45만 5,837명을 기록하고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7%로 증가함에 따라 취업애로계층의 장기화가 진행
 -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의 단기 미취업자는 전년대비 6.8% 증가하며 97만 9,103명을 기록했으며,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를 나타냄
 - 2010년 취업무경험 미취업자가 전년대비 14.9% 급증하여 6만 7,461명을 기록

< 취업애로계층의 취업 활동별 추이 >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불완전취업자		439,360 (27.6)	428,447 (28.2)	425,440 (28.1)	509,453 (27.9)	418,699 (21.8)
취업有경험 미취업자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	788,590 (49.6)	750,019 (49.4)	752,873 (49.6)	917,176 (50.3)	979,103 (51.0)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	308,668 (19.4)	28,6847 (18.9)	281,312 (18.5)	337,709 (18.5)	455,837 (23.7)
취업無경험 미취업자		54,547 (3.4)	51,423 (3.4)	57,038 (3.8)	58,693 (3.2)	67,461 (3.5)
계		1,591,165	1,51,6736	1,516,663	1,823,031	1,921,101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3. 해소 방안

- 취업애로계층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종사자 지위별, 산업별, 활동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방안 필요
 - (연령별) 고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양성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인턴제 적극 활용과 노년층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 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 취업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 고령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 (성별) 여성이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 완화와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공공보육시설 확대
 -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학력별)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
 - 고용지원센터와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일자리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
 - (산업별) 희망근로 사업 축소로 인해 공공행정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마련
 -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민간부문으로 재취업 또는 전직을 할 수 있는 취업연계 프로그램 마련
 - (취업 활동별) 취업유경험 미취업자 중에서 장기 미취업자와 단기 미취업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취업무경험 미취업자를 취업유경험자로 전환하는 정책 활성화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턴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활성화로 인해 취업무경험 미취업자를 취업유경험자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발판 마련

김민정 연구위원(02-2072-6212, kimmj@hri.co.kr)

< 별첨 1. 취업애로계층의 규모 및 비중 추이 >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324,458 (20.4)	305,335 (20.1)	321,942 (21.2)	424,871 (23.3)	582,810 (30.3)
실업자	827,348 (52.0)	782,954 (51.6)	769,281 (50.7)	888,707 (48.7)	919,592 (47.9)
불완전 취업자	439,360 (27.6)	428,447 (28.2)	425,440 (28.1)	509,453 (27.9)	418,699 (21.8)
계	1,591,168	1,516,737	1,516,665	1,823,032	1,921,101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 별첨 2. 취업애로계층의 연령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15~29세	466,279 (-6.0)	423,832 (-9.1)	419,427 (-1.0)	486,374 (16.0)	490,698 (0.9)
30~39세	338,022 (-12.8)	339,572 (0.5)	333,195 (-1.9)	393,947 (18.2)	371,878 (-5.6)
40~49세	373,968 (-11.1)	341,325 (-8.7)	348,900 (2.2)	407,562 (16.8)	401,680 (-1.4)
50~59세	252,950 (-1.1)	247,310 (-2.2)	250,384 (1.2)	341,181 (36.3)	362,184 (6.2)
60세 이상	159,946 (-4.8)	164,696 (3.0)	164,756 (0.0)	193,966 (17.7)	294,662 (51.9)
합계	1,591,168	1,516,737	1,516,665	1,823,032	1,921,101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0.0	-2.6	-4.9	-0.7	1.6	5.0	2.6	3.7	1.7	2.6
유로 지역	0.5	-4.1	-2.5	-0.1	0.4	0.2	1.7	0.4	1.0	0.4
일본	-1.2	-6.3	-19.9	11.3	-1.2	5.7	2.8	6.8	3.0	4.5
중국	9.6	8.7	6.2	7.9	9.1	10.7	10.5	11.3	10.3	9.6
한국	2.3	0.2	-4.3	-2.2	1.0	6.0	5.9	8.1	7.2	4.4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0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월14일	1월2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35	3.45	0.10%p
	엔/달러	92.93	88.43	81.19	82.75	82.09	-0.66¥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356	1.3459	0.0103\$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787	11,823	36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10,499	10,437	-6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69	3.81	0.12%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14.8	1,121.2	6.4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108.2	2,106.7	-1.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월14일	1월2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1.52	88.75	-2.77\$
	Dubai	78.06	73.14	88.80	93.23	93.17	-0.06\$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33.06	331.90	-1.1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